

(flow cytometry)에 의한 DNA ploidy 분석이 가능한 경우인 20명을 대상으로 임상 고찰 결과 다음과 같은 성적을 얻었으며 설암 환자 예후 측정에 있어서 DNA ploidy의 유의성을 알아 보았다.

1) 병기(stage)와 DNA ploidy의 상관 관계는 제 1기 환자 6명중, 4명(66.7%)이 이배수성(diploidy)이었고, 제 3기 환자 9명중 6명(66.7%)이 비배수성(aneuploidy)을 나타내었으며 특히 사망한 제 4기 환자 2명은 모두가 비배수성(aneuploidy)이었다.

2) 조직학적 전이가 판명된 8명 환자의 임파선 분석 결과 5명(62.5%)에서 비배수성(aneuploidy)을 보였다.

3) 근접전이(Regional Metastasis) 및 재발이 없었던 12명의 환자 중 8명(66.7%)이 이배수성(diploidy)을 나타내었고, 근접전이 및 재발을 보인 8명의 환자 중 6명(75%)이 비배수성(aneuploidy)을 나타냈다.

4) 총 20명 환자 중 10명의 이배수성(diploidy) 종양환자에서의 S(Synthetic)-phase는 평균 27.6%이었으며 나머지 10명의 Aneuploidy 경우에는 평균 33.5%를 나타내었다.

— 18 —

Pilocarpine과 Atropine 투여가 백서 악하선조직의 방사선손상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김광현 · 김진영 · 성명훈 · 김창원

두경부 악성종양의 방사선치료시 타액선이 조사야내에 포함될 경우에는 방사선에 의한 타액선의 분비기능장애로 인하여 구강건조증이 초래되고 연하장애, 미각소실, 치아부식증 등이 병발하게 되고, 많은 환자들의 경우 영구적으로 타액선의 분비기능이 저하되어 평생동안 심한 불편을 겪게 된다.

타액선의 방사선조사시 분비과립이 많이 존재하는 장액성세포가 주로 손상을 받게 되므로, 저자들은 타액선내의 분비과립의 양을 변화시킴에 의해 방사선에 의한 타액선의 손상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백서 타액선의 분비에 영향을 주는 pilocarpine 및 atropine을 투여한 후 방사선조사를 시행하여, 타액선조직에서 방사선에 의해 받는 손상의 정도를 검색하였다.

방사선조사는 18Gy를 단일조사하고 백서 악하선내의 장액성 세포의 변화를 광학현미경 및 투과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Pilocarpine 투여군에서는 장액성세포내의 분비과립이 현저히 감소되었고, atropine 투여군에서는 장액성세포내의 분비과립이 오히려 증가하였다.

2) 대조군에 있어 18Gy를 조사한 7일후 장액성세포내의 분비과립의 수가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2주후부터 서서히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atropine 투여로 분비과립이 증가된 상태에서 방사선조사를 한 결과 세포의 손상이 매우 심하여 조사 후 3일째부터도 장액성 세포내 분비과립의 감소가 나타났다. Pilocarpine을 투여하여 장액성세포내 분비과립이 소실된 상태에서 방사선조사를 한 경우는 장액성세포가 거의 정상소견을 보였으며 분비과립의 생성도 정상으로 회복됨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장액성세포내의 분비과립이 양과 방사선에 의한 세포의 손상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세포내 분비과립의 양을 변화시킴에 의해 방사선에 의한 타액선의 손상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사료되었다.

— 19 —

경부 복합 임파전이암 1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두경부외과학교실, 병리학교실*

이선희 · 진성민 · 최종욱
윤상애* · 원남희*

복합암은 내장기관의 원발병소에서는 보고된 바 있으나 두경부에서는 희귀한 질환이며 특히 복합 임파전이암은 아주 드물다.